New Testament

Korean, North Language

Korean, North - Bible - New Testament

마태복음	3
마가복음	90
누가복음	147
요한복음	242
사도행전	317
로마서	406
고린도전서	446
고린도후서	486
갈라디아서	512
에베소서	526
빌립보서	539
골로새서	548
데살로니가전서	557
데살로니가후서	566
디모데전서	571
디모데후서	581
디도서	589
빌레몬서	594
히브리서	596
야고보서	624
베드로전서	634
베드로후서	644
요한1서	651
요한2서	662
요한3서	664
유다서	666
요한계시록	669

Domínio Comum.

Korean, North - Bible - New Testament

마태복음

마태복음 1

1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8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11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12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Domínio Comum.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17 그러므로 그 모든 대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이다.

18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20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2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4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 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5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6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7 그 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9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11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6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19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20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21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22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23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3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2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3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4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6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8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13 그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15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17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마태복음 4

1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2 예수께서 밤낮 사십 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3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5 그 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7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8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9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11 이 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13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5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16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17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18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20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1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22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24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25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마태복음 5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2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 "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5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12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15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24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25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26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29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30 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31 "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33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38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40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41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 주어라.

42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43 "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46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6

1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2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3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5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10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16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18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19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20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28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마태복음 7

1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2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3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5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7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8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9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10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12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15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16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21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24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29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8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2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6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 주마.”

8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9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10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1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12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3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15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
주셨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18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19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2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21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2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24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27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28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29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30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32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 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 속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 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34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마태복음 9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2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 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3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4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5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6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11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12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13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19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20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21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22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 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23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25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26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 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28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 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29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30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31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32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33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3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35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36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Domínio Comum.

37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38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마태복음 10

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3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4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5 예수께서 이들 열둘을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6 오히려 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7 다니면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8 앓는 사람을 고쳐 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9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10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11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12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13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1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16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1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18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19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21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22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23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24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25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26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 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28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30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32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34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35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37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39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40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41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42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1

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2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3 물어 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6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7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9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10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11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12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13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14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15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6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17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19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0 그 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21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22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23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24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25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28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30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2

1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2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 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5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10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13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14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15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6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7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8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19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20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21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

22 그 때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23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24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26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27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29 사람이 먼저 힘 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있느냐?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수
있다.

30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32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33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35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3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37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38 그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40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43 "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44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45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46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47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48 그 말을 전해 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49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50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태복음 13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2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5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6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7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8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가 되고, 어떤 것은 육십 배가 되고,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0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12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15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17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18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22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결실을 낸다."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25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26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27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28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29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32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 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3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42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44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 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 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46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47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48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49 세상 끝 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50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5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5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53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 곳을 떠나셨다.

54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55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56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57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58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4

1 그 무렵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2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3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4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5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6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7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써
약속하였다.

8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9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 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10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11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13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1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17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18 이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 오너라.”

19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20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21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오천 명쯤 되었다.

22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23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24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25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26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27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8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30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에 그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31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32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33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36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마태복음 15

1 그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2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5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6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7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9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10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2 그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14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 먼 사람이면서 눈 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 먼 사람이 눈 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15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1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19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21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22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2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25 그러나 그 여자는 나아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2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27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28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29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30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 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31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 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2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33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36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37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38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사천 명이었다.

39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6

1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3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나가셨다.

5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 오는 것을 잊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7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8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9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 명이 먹은 그 빵 다섯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거두었더냐?

10 또한 사천 명이 먹은 그 빵 일곱 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거두었더냐?

11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12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13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1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18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20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21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 그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27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
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줄 것이다.

2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마태복음 17

1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2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3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4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6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8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1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13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14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15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16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1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18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19 그 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21 절 없음

22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23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24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25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26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닢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마태복음 18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2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6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7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8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9 또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10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11 절 없음

12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다 남겨
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13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17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21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24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27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29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31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34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35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9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 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2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3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5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6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7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10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12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4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15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16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1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18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19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20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25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27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2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29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백 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30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20

1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2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3 그리고서 아홉 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4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5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6 오후 다섯 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9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0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1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12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13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14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16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8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19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21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4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25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26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8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29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30 그런데 눈 먼 사람 둘이 길 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1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2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33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34 예수께서 가엽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복음 21

1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3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4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5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다.”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7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8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1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3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14 성전 뜰에서 눈 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15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16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어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17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 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18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19 마침 길 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20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22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26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27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30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31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 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33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34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35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36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37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38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39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40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 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4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43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46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

1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5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7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8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9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10 종들은 큰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11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12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 그 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4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15 그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16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17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8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 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닢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21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22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 두고 떠나갔다.

23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24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25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으므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26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7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8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30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31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32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33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34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35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36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39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40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41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42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43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44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6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 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마태복음 23

1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3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4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5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6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7 장터에서 인사 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9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10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11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14 절 없음

15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16 ”눈 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17 어리석고 눈 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19 눈 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21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2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24 눈 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25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26 눈 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2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29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30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31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32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33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35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36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38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3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4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3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6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7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8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11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12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15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17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18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19 그 날에는 아이를 밴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21 그 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2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실
것이다.”

23 ”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25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26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27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29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30 그 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싸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1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32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3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35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6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5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6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4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8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49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50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5

1 ”그런데,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5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7 그 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8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10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11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12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15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6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17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2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4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25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27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9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30 이 쓸모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31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33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 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37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38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39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40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41 그 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43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지 않았다.'

44 그 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45 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46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6

1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3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4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6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8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9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10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11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12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1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4 그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15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닢을 셈하여 주었다.

16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7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19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20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21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22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24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25 예수를 넘겨 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26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28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2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30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33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3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5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36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37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38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39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40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42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43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44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46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4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48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49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 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51 그 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52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53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5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57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여
앉았다.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60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 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61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62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6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65 그 때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66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67 그 때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68 말하였다. “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69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70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71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72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73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74 그 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75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마태복음 27

1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2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3 그 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서른 닢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4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5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6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 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되오.”

7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8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9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서른 닢,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10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12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 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14 예수께서 한 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

15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그런데 그 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17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18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20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21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22 그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23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24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25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26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27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모았다.

28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29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30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31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32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34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36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37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38 그 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39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40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4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43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44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45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47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48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50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53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54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55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56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5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59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베로 싸서,

60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61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62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63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4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5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66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마태복음 28

1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 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 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3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4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6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7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8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9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11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12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 주고

13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14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15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17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5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8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9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0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11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12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16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19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21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22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23 그 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24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25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26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27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28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29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30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31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33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35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36 그 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37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39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40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42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43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44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마가복음 2

1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2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3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4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6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8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9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11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12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15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16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17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22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24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26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27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28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마가복음 3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2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3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4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5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6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8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9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10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11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14 예수께서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15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6 [예수께서 열둘을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17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18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19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

20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21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23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25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26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27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것이다.

2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30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32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3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34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가복음 4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뭍에
있었다.

2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3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5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6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7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가 되었다."

9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0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
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12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13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14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15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16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17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18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20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22 숨겨 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23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25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27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낟알을 낸다.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32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33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35 그 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36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 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37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39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마가복음 5

1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3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 둘 수
없었다.

4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5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 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7 큰소리로 외쳤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8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9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10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12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13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1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15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16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17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19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20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22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23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24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25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온 여자가 있었다.

26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27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여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29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30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31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33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아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35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36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38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39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40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42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6

1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2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3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4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5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 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6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7 그리고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8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9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10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12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14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15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16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17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18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19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21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22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23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24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25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26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27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28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29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30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31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32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33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 곳에 이르렀다.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5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36 이 사람들을 헤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39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40 그들은 백 명씩 또는 쉰 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41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44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오천 명이었다.

45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46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4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뭍에 계셨다.

48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49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50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5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52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53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55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 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56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마가복음 7

1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2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3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4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5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7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8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9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10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11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12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13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14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5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6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

17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9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20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21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23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24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25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26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27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28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29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30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32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33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34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35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36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37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마가복음 8

1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2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3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4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 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개가 있습니다.”

6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7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8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9 사람은 사천 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10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11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12 예수께서는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13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14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1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16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17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18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열두 광주리입니다.”

20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광주리입니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2 그리고 그들은 벳새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23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24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25 그 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26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 ;

2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30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31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께서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33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34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37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38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마가복음 9

1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2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3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4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5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6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7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8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10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11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13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14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17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18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20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22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2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24 그 아이 아버지는 큰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25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26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27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28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 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30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31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33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34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35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36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38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39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41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42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43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4 절 없음

45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6 절 없음

47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8 지옥에서는 '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50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마가복음 10

1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2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4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8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10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12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13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4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6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17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19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20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1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23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24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26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27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28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0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 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31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32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33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34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35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3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40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41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4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43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44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46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 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48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50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51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5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마가복음 11

1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4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5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6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7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 타셨다.

8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9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10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15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6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17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18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
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19 저녁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으레 성 밖으로 나갔다.

20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21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22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23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4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26 절 없음

27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28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 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31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32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3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12

1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2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3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 손으로 돌려보냈다.
4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5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6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7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8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9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10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1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12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13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14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15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 황제의 것입니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18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19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20 형제가 일곱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이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21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22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3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25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26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27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 하고 있다.”

28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30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34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36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37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

38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1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두 닢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 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44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마가복음 13

1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3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4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7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8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10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12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13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 ”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 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15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16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17 그 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18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19 그 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 주셨다.

21 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 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23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24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26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싸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7 그 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28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30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33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35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6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14

1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3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5 이 향유는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6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7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8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9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0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11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2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13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 가거라.

14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15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16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17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가셨다.

18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19 그들은 근심에 싸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21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22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23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24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2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26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29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3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1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32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34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싸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35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

36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37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8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39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41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42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43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44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45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46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47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 버렸다.

4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50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51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52 그는 홑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53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55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56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57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58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59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60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61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6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63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64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65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 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66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67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68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69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70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71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72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마가복음 15

1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2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3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4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

6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 주곤
하였다.

7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8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9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10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12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13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4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15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16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 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17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18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19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20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21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22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23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24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25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6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27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28 절 없음

29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30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31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33 낮 열두 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세 시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35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36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두고 봅시다.”

37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38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39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40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 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41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42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43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44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 보았다.

45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46 요셉은 삼베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베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 보고 있었다.

마가복음 16

1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2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3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4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5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6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7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8 그들은 뛰쳐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9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10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11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12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

14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18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

19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20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

1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2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3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5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6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7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8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9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10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11 그 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12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3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14 그 아들은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15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16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19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20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21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하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22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23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24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25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26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27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29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30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31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2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33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39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42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45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46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48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49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51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52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53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54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57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59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60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61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62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
보았다.

63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64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65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6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67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68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69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70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72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73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74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75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76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77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79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80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누가복음 2

1 그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2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3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4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5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 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6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7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8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10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12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13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14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15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16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17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

18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 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20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21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22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23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24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25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26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27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28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29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30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1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32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34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 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35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36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일곱 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37 과부가 되어서,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38 바로 이 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39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40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41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42 예수가 열두 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43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44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45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46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47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48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49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50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51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누가복음 3

1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3 요한은 요단 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4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5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6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7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8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9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10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13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14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15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 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17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오.”

18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9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20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21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왔다. “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23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서른 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24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맛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25 맛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낙개,

26 마앗, 맛다디아, 세메인, 요섹, 요다,

27 요아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28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29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맛닷, 레위,

30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31 멜레아, 멘나, 맛다다, 나단, 다윗,

32 이새,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33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34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35 스룩, 르우, 벨렉, 에벨, 살라,

36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37 므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38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4

1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3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4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5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6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7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8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9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10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11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12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13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14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15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16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17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18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19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20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22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23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24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2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26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27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28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29 그래서 그들은 들고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31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32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33 그 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34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35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36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37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38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39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40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41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42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43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44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누가복음 5

1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 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2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뭍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4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5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6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7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9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10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뭍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12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14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15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16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17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18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19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21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22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23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24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치워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25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26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27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28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29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30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32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33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 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35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36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누가복음 6

1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2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8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 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10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11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12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13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둘을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4 열둘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16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17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18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19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21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24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5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27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30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31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32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33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34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 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36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7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38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41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 때에 네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43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45 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46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47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48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49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누가복음 7

1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2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3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4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6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7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8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11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12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13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14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15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16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셨다” 하였다.

17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19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20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21 그 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23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24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26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27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2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29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옳으심을 드러냈다.

30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31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32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33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34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35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36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37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39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4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41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42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44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45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4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48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49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5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누가복음 8

1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2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3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4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5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6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7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8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9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11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2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13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14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15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16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17 숨겨 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18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9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20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22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23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24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26 그들은 갈릴리 맞은 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27 예수께서 뭍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28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29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30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31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32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3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35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36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37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38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39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40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41 그 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42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43 무리 가운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44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45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46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47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아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48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49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51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Domínio Comum.

52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53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55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56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누가복음 9

1 예수께서 그 열둘을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2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3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5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6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7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8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9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였다.

10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새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11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2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13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4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오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오십 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16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17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18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 그들이 대답하였다. “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21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22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흗날에 살아나야 한다.”

23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28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29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30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그들은 영광에 싸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34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35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36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37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38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39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40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4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42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43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4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45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46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47 예수께서 그들 마음 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48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49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5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51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52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53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54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55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56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57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5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59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6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61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62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10

1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흔[두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3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4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6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7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8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9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10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11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3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14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5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16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17 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9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22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27 그가 대답하였다.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2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29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31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3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34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35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38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39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41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42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1

1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4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꾸어 주게.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7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10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11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12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15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16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18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19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21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략한 것을 나누어 준다.

23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24 "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25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26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28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29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31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33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34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36 네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네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37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38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39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40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42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43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좋아한다!

44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45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4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47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48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50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51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2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53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54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누가복음 12

1 그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2 가려 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 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4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5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 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7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10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11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12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13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1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15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16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17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18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겠다.

19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22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23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24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25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26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27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28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29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30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1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2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33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34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36 마치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37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39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1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3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4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5 그러나 그 종이 마음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46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48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49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50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51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54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55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56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58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처넣을 것이다.

5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3

1 바로 그 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열여덟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5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6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11 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12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13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4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15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6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19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20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21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22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27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28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29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30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31 바로 그 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33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35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 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4

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2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3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4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 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5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6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7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8 "네가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9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10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13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14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15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18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19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20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1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 하였다.

22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23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25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6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29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30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32 당해 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33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4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35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누가복음 15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2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5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8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9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1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14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15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19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25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26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 보았다.

27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29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 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31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32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 16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2 그를 불러 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3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4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5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6 그 사람이 '기름 백 말이오'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쉰 말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7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백 섬이오'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여든 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8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10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11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13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 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15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16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17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18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22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23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25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26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 받는 이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30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31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7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2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4 그가 네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5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7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8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16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1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19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20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21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22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23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24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25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26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28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29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31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32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33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35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36 절 없음

37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누가복음 18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2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3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4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5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7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

9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11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13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5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16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1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8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1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20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21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3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24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25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26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8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 왔습니다.”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30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3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32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33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34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35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36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 보았다.

37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38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9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0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41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4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3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누가복음 19

1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2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3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4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6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7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8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9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13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 므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14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15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6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

17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18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

19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20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므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21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므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24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서, 열 므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5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열 므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29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30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31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32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33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34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35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36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37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38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39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40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42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43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44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5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48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0

1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2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4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5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6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7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9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10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 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1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12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13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14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 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15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7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18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19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20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체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21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22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23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4 "데나리온 한 닢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26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28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30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31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2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33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35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36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37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38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39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40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42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43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44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45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6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47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21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두 닢을 넣는 것을 보셨다.

3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4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5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7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9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11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13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15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16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17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20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 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22 그 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23 그 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24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25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26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 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8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30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31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32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33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35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36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37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38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누가복음 22

1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2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3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4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5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6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7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8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9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11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12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13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14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1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17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1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19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0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21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22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23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24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27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28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30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31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32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33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34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3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 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38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39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40 그 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41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42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43 [[그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44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45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46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4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4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49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50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51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52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54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55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여 앉아 있었다.

56 그 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57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58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59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60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61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62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63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64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65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66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67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68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69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오.”

70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71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누가복음 23

1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2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3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5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6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오?”

7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8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 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9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 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11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 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

13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놓고서,

14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15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16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17 절 없음

18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

19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21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22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23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5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27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28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29 보아라,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30 그 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31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32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33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34 [[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35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36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38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42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44 어느덧 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47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48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49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Domínio Comum.

50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51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53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베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54 그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55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56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누가복음 24

1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3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4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5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7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8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9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11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베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13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 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22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26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7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28 그 두 길손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29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30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34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

36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37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41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42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43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45 그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47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9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50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51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3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

1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2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6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10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2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14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5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6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17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19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그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20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21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22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23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24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26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27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28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31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33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34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35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36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38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네 시
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41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42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43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 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44 빌립은 벳새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46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48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49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5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51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

1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2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4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5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6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7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9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10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하였다.

11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12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13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4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17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18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 주겠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20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마흔여섯 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구요?”

21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23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24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25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3

1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2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4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7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8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9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1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7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20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22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23 살렘 근처에 있는 애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24 그 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25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26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 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27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8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29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30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31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32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3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34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35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36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요한복음 4

1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2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3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4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5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6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7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10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12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5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너라.”

17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18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19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23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2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30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33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36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37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38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39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40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41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42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43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44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45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46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 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47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4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49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5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51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52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 보니 “어제 오후 한 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53 아이 아버지는 그 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요한복음 5

1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3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5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6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7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9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10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11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12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13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 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14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15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16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18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20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21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22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23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25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26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27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28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9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30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31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32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34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35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36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37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38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39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40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42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43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44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46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47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6

1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2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3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4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5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7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이백 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8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9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11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12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13 그래서 보리빵 다섯 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14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15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17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18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19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십여 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1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22 그 다음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23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24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25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27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28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30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33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4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3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38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39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40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41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42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43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45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46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47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50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52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5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59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60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61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62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63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64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65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66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69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70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71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7

1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2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3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4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5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8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9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10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11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12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13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 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4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15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17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18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0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23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24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

25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26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 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27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29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30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31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32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3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34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35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36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37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39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41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42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43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44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45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46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47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48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50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51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52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53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복음 8

1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2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4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7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8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9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10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12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13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1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15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16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17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18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19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20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22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24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5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26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27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28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30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31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32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3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3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35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37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38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39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40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41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4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43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44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45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46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47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8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4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5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52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53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오?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5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55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56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57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도 안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5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59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요한복음 9

1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2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4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8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9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10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11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12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15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17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18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19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20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21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22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23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24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25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네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27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곧이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28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29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30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31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32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33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34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35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그가 대답하였다. “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38 그는 “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39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요한복음 10

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2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4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5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10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11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

13 그는 삯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5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16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18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19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20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21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22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23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24 그 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26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31 이 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 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33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35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36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37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38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39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40 예수께서 다시 요단 강 건너 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41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42 그 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요한복음 11

1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2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3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4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5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6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7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11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12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13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4 이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5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 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16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 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19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23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25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26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28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29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31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3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35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37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38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39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40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41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44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46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47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8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49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51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52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53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4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55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56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57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 달라는 명령을 내려 두었다.

요한복음 12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 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여 있었다.

3 그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4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6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8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9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10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11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12 다음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14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16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17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18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9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21 그들은 갈릴리 벳새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22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25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26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때에 왔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29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31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32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33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34 그 때에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35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36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37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38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39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42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43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44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46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47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48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49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요한복음 13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2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3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4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5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6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7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8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9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1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11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12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14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15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16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18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19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20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22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보았다.

23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24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25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2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27 그가 빵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 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28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30 유다는 그 빵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3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32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33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34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36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37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3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5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8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12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14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17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9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1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22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23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26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27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28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29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30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31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요한복음 15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2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4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 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2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23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24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25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

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3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4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5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6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8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9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10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11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12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16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17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18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19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20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싸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21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22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싸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23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25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 줄 때가 올 것이다.

26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27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28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29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30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 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33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7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2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5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6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7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9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10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11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2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13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7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19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21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2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6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2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 곳을 알고 있었다.

3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4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5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7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9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0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11 그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

12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14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16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17 그 때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18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19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2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21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22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23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24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25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26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27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28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29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30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31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2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3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

3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오?”

35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3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37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38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39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40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요한복음 19

1 그 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2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3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4 그 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 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5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6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7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8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9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1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12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13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14 그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열두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15 그들이 외쳤다.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16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17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 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18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19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라고 썼다.

20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21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22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23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24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25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26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27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28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29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31 유대 사람들은 그 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32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33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34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35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36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37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38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39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왔다.

40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베로 감았다.

41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42 그 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요한복음 20

1 주간의 첫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4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5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베가
놓여 있었고,

7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8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9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10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11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13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4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15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17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18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19 그 날, 곧 주간의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7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28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29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30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31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1

1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2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 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4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5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7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8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 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9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1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11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백쉰세 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3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14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15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16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17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시므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18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20 베드로가 돌아다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21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23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24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5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

1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2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3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6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9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싸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10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12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13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매와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15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백이십 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16 ”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17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18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삯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19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20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21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22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3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맛디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24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25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26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맛디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사도행전 2

1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2 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3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4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5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6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7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8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9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11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12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13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5 지금은 아침 아홉 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16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17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18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19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20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21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22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23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2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26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27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28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29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30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1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32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33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 -

35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7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38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9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40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41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약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3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44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46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3

1 오후 세 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2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메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3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5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6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7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8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9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10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11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12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13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14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15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16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17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1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20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21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22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23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24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25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6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4

1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2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3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4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오천 명이나 되었다.

5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7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 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8 그 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9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10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11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12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13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14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15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7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18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19 그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22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다.

23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24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25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26 세상 임금들이 들고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27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28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29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0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31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32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34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36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37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행전 5

1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2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3 그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4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5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6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7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8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오? 어디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9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10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11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12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13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여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14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15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16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17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일어나,

18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19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21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 때에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22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23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4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25 그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6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27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28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0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31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32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33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34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35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사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37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38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39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 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40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41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42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 저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6

1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2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3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4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5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6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7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8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9 그 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10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 낼 수
없었다.

11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12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13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14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5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도행전 7

1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오?”

2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3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4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7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8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열두 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9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10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11 그 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12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13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14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모셔 오게 하였습니다.

15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16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서,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었습니다.

1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18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19 이 임금이 우리 겨레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0 바로 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 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21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22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23 모세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 볼 생각이 났습니다.

24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25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26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27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28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29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30 사십 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31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2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33 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34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35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36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37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38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입니다.

39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였습니다.

40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Domínio Comum.

41 그 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4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43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 버리겠다.'

44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45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46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47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48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49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50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52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53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54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55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56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57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58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59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60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도행전 8

1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2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3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4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5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6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7 그것은, 귀신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8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9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10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11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12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13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14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15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16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17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18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Domínio Comum.

19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20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21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몫도 없소.

22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 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23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24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25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26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27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29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30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31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32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33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34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35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36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37 절 없음

38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39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40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사도행전 9

1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 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4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5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6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7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8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9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10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1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12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13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14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15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17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18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20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21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22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23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24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25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
내렸다.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27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28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29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30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31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32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33 거기서 그는 팔 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34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35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36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37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38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39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 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 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40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었다.

42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43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사도행전 10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2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3 어느 날 오후 세 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4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5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6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7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8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9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10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11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12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13 그 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14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15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17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18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19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20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21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오. 무슨 일로 오셨소?”

22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23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24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25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26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27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28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9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30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세 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32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33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35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37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9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40 하나님께서 그를 사흗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41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42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43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44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45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놀랐다.

46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47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사도행전 11

1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2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3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오" 하고 그를 나무랐다.

4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5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6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의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7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8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9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10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11 바로 그 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3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14 그가 네게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15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16 그 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18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19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20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21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3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25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26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일 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27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28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29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30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사도행전 12

1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2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3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4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명으로 짠 경비병 네 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5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6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7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8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9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0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 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11 그 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12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14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15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거야" 하고 말하였다.

16 그 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17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18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19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20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21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22 그 때에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23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24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25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사도행전 13

1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2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3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4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므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5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6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7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8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9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10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11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12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13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4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15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16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17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18 광야에서는 사십 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 주시고,

19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20 약 사백오십 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21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사십 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22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23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24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25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26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27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28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29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30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31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32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33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34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35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36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37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38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9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40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41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42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
달라고 청하였다.

43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45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46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47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48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49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50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51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도행전 14

1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2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3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4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5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죽이려고 했다.

6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7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9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10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11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13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Domínio Comum.

14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15 이렇게 말하였다. “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16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17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18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19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20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21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22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23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24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25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26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27 그 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28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사도행전 15

1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2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 보게
하였다.

3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4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5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6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7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8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9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10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11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12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13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14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15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17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18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19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20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22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23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4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5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26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27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28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9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Domínio Comum.

30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 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31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32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33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34 절 없음

35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36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
봅시다.”

37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38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39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40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41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사도행전 16

1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3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5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6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므로, 그들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7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8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9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10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11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갔고,

12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13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14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15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16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17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18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19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20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 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21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2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23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24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차꼬를 단단히 채웠다.

25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26 그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꼬가 풀렸다.

27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28 그 때에 바울이 큰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29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30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32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34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35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36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37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38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39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청하였다.

40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사도행전 17

1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2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3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4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5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6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7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8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9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10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11 베뢰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12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13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뢰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14 그 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15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베뢰아로 떠나갔다.

16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17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18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19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20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21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23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24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25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6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27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28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29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30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31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32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33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34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사도행전 18

1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2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3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4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5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6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7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8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9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11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 년 육 개월 동안
머물렀다.

12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13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15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16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Domínio Comum.

17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18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19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20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21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22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23 바울은 얼마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 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24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25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27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 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28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9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2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4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5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8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9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10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11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13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14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15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16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17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18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19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오만 닢에 맞먹었다.

20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 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21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2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23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24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25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26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27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28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29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30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31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32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33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 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34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두 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35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6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37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38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39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40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41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사도행전 20

1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2 바울은 그 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3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4 그 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뢰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5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6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7 주간의 첫 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8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9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삼 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11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12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13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14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15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16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18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19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20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21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22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23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25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6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7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8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 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29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30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31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2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33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34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35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36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37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38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사도행전 21

1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2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3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4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5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 곳을 떠나 여행 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6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7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8 이튿날 우리는 그 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9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10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12 이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13 그 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14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15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16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 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18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19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20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21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22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23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24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5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26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27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28 소리 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 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29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0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31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32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33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34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35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메고 가야 하였다.

36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 버려라!” 하고 외쳤다.

37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38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사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39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40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사도행전 22

1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3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4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5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6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7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8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10 그 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 줄 것이다.'

11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12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3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14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15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16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17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18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19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20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1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22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 버려라. 살려
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23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24 그 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25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26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27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28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29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30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사도행전 23

1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 동포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2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3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4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5 바울이 말하였다. “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6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8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9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10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11 그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12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13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마흔 명이 넘었다.

14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15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 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16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17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18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Domínio Comum.

19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 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20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1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마흔 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23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아홉 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여라.

24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25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26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27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
냈습니다.

28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29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0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

31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32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33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34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 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35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도행전 24

1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2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4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염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6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7 절 하반부터 8절 상반까지 없음

8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9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10 그 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11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12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13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14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15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17 나는, 내 겨레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Domínio Comum.

18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19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21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 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22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23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24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25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7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사도행전 25

1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3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4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5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6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7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8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9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10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11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12 그 때에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13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14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판결을 청하였습니다.

16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 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7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18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21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Domínio Comum.

22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24 그 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립바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25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6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립바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27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6

1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2 ”아그립바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3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5 그들은 오래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6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8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9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0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11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12 "한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13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14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 때에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5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16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 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7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9 "그러므로 아그립바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20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21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22 그러나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23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24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25 그 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26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7 아그립바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28 그러자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29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31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32 그 때에 아그립바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사도행전 27

1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2 우리는 아드라뭇데노 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3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4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5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6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7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네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8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새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9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10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11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12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뵈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뵈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13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14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쪽에서 몰아쳤다.

15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16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 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17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18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19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 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21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23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5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26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27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28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 보니, 스무 길이었다. 좀더 가서 재니, 열다섯
길이었다.

29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닻 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30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내렸다.

31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32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33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34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35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36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37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이백일흔여섯 명이었다.

38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39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40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41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여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42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 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 버리려고
계획하였다.

43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뭍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44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뭍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뭍으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28

1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 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2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3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4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 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5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6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7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8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9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10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11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12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13 그 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14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레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15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17 사흘 뒤에 바울은 그 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겨레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18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19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Domínio Comum.

20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21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22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23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24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25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
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26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27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28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29 절 없음

30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두 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31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Domínio Comum.

로마서

로마서 1

1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3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4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6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7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8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 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10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Domínio Comum.

11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3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14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15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6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19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20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21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2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23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5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27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28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29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30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32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2

1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3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4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5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7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8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9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10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11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12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15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16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17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19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20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21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22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23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24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25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26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27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28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29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로마서 3

1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2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4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5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 본 것입니다.

6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7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8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9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1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14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15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16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17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18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19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25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26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27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28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29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31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로마서 4

1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3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4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6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7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8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9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10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11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2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3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4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15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16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17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18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 그는 나이가 백 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2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23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24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25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

1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2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3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4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7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0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11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13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4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15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
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16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17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 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18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20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21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6

1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2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3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4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5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7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8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9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11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3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14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6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18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19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20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마는,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22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3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7

1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2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3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4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5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6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옭아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7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 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8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9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10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1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12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13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4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15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6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17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18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19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20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21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22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24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8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3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4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7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8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9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10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11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13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14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17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18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9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21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22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3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24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25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1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34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6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37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39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9

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2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3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4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5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6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7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8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9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10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11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 있게 하시려고,

12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13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14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17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1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19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20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22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23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2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25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27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28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29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30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31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32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33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0

1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2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3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6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 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7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8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9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1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12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13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4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5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16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18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19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20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 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21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11

1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3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칠천 명을 내 앞에 남겨 두었다” 하셨습니다.

5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6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7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8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9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10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11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13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4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15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 맏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17 그런데 참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 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18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9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 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20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21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23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24 그대가 본래의 돌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25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26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27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28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29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30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31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3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33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34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35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36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2

1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2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3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7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8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9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10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11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12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13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14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16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18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19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로마서 13

1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4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5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6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7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9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0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1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13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14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4

1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3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4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5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6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9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0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1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12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15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18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19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20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21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2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3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로마서 15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2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5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8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9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11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12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13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14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15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6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8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19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20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21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22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23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24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 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5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26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27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28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 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29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30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31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 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2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3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6

1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뵈뵈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4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 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6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7 나의 친척이며 한 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8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도불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1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깃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2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3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7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18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 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Domínio Comum.

19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20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2 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3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4 절 없음

25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26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27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4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6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잡았습니다.

7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9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10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11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13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14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5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16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17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8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20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21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22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24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26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27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8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29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31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

1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2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4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 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5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6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7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8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9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11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3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4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15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16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

1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2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3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4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 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6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삯을 받을 것입니다.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10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11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12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13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
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14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15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16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8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20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21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23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

1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3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4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 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6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7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8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9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11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12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13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14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15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일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16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17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18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19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20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21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

1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3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4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5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6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7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8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9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10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6

1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2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3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4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5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6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7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 주지 못합니까?

8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9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10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11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12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13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14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15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6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18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19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20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

1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3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4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5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6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7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8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9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10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11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2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3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4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15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16 아내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남편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압니까?

17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18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9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21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22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23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24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25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26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27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28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29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30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31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32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33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34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35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36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37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38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39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40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

1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2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4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5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6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7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하므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8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9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0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11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12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

1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3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4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5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6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7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 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8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10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11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12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13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14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5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17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삯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18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삯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19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0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1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2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23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24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25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6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7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

1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2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3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4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5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6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7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9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10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11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3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14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15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16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18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19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20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21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22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23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24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25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26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7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28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 주거든, 그렇게 알려 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29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30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32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33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2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3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4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 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6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7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11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13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14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15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 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16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17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18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19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21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22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23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24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5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6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28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29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30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31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32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3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34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

1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2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3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4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5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6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9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10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11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십니다.

12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13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4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15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6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7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18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19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20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21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22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23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 줍니다.

24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25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26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27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28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 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29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30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31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

1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5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8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10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11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12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마는,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마는,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4

1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2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4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5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6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7 피리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8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9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10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11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Domínio Comum.

12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13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14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15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16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7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18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다섯 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20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21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22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23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24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25 그 마음 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26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27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28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29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30 그러나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31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32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34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35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36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37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8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39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40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

1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2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3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4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흗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5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7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9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13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16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17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8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Domínio Comum.

1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24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25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6 맨 마지막으로 멸망 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27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28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 당할 그 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29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30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31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32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33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34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35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36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37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3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
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39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40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42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43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44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45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46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48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49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50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51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52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박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53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54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55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56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58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

1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2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 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4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5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6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8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9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0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1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13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14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15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16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17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18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19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20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21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22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 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23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24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4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6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냅니다.

7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11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2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3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14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15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6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17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오, 아니오'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18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20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1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2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23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24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

1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3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4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5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6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7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8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9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10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11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13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14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6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7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

1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올리는 말을 늘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2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3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 판에 쓴 것입니다.

4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5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7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8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9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10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1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12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13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14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15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16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17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

1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2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3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4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5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6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8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9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10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11 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12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13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14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17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18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

1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2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5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7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8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9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11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12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15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18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19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21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

1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2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3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4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5 매 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6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8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9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10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11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12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13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14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18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고린도후서 7

1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2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3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4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5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6 그러나, 실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7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 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8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9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10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11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2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에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14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5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16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8

1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2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3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4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5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6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7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8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11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12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13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14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16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17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18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19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20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21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22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23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2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

1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2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 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3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4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5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6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7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8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9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11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시므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2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13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14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15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0

1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2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3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4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5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6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7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8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9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10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13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14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15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16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7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18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

1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2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3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4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5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6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7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8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삯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9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10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11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12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13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14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15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16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 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 두십시오.

17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18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19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 줍니다.

20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21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22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24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25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26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27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28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29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30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31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32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33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 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

1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
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2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3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4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6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7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8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9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0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11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2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13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5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16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7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18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19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21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3

1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2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3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4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5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6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7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0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11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12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

1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2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3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5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6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 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8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9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10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11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12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13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14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15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16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18 삼 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19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20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21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22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23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24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

1 그 다음에 십사 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3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4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여든 자들입니다.

5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6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7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10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11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12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13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14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15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16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8 내가 헐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19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

1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 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2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4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5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6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7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8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9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0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11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12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14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5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16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17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18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19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21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23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24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25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26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7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8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9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

1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2 아버지가 정해 놓은 그 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5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6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8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9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10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11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12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13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14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15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16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17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8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19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20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21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22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24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25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6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27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28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29 그러나 그 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30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31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5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2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3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4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5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7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8 그런 꾐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9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10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12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13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14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15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16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17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8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20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21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23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24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25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26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

1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3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4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5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6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7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8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9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11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12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14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15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17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18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

에베소서 1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5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6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7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8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9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10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11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12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3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14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15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16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20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21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2

1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2 그 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4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8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12 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13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15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16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17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18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21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베소서 3

1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

2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3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4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5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6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10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11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12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3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14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15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20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에베소서 4

1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3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4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5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8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9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11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2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4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15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16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17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18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24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6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27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8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29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31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32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5

1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2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3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4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5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6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7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10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11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여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12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13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14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16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1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20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21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22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23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24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26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9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32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33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에베소서 6

1 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2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3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4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5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6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7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8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9 주인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10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11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12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14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15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Domínio Comum.

16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18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19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20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21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22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빕니다.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1

1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5 여러분이 첫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7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8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9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서,

10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11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12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Domínio Comum.

13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14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15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16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17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18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19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21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2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3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24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25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26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27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28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9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30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빌립보서 2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2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3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4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5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6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13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14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15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16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달음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18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19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앎으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20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1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23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25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6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7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29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30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

1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2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3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4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5 나는 난 지 여드레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6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9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10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1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12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좇아가고 있습니다.

13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16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17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18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9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

1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2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게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3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 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5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7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9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10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11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4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 한 일입니다.

15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16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17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18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 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19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20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2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5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6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7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준 사람입니다.

9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10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11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12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4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15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18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19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21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22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23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25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26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27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8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29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

1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2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에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4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7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8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10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11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12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13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1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15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17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18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19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20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21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22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23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2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3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4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싸여 나타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6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7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8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훼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9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11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13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17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18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19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20 자녀 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21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22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23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24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25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4

1 주인 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3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4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6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7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8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에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9 그리고 사랑 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 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것입니다.

10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11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 준
사람들입니다.

12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Domínio Comum.

13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14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눔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16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17 그리고 아킵보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18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2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4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6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8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9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0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

1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2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3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4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5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6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7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8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10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11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12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14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15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16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17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8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19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20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

1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2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3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 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6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7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8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10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2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13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

1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2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4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5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6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9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10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11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12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16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

1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2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7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12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13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14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15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9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20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21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22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23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25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26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27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데살로니가후서 1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6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7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8 불꽃에 싸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9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0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11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12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

1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2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4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5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6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7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8 그 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9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10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12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13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4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15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16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17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

1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십니다.

4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6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7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8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9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0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11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12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13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14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15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16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7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1

1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2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4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5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6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7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8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9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10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11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12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5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1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17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8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20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내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

1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2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3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4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6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7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9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10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11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12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13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14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15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

1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5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6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7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9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10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 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11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13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14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15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16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싸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

1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2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6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7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8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9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10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11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12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13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14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15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16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

1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2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3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4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5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6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7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8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예순 살이 덜 되어서는 안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10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11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12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13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14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15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16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18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 마당에서 낟알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20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22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여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25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

1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2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3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4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5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6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7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8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9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10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좇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11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13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14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15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16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17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18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라고 하십시오.

19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20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21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1

1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3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4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5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6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8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11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12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 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13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14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15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16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17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18 그 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

1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2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4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5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6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7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8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9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10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12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13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14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15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16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17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18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19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20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22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23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24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25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26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좇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

1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3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5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6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7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8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9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11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1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13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14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5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

1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2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3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4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5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6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9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12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13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14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15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16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17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8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 두었습니다.

21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디도서

디도서 1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2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4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5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6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8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9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11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12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13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14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15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16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디도서 2

1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2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3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4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5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6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7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8 책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9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10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11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2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13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15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디도서 3

1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2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4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7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8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9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10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11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12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
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13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 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14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5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서 1

1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2 자매 압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킵보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4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6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7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8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9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10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11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2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13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14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15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6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17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18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19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20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21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22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24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2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

1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2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3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4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5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6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7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8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9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10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11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12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13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14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2

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2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3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4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6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7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8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9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10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12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13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4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15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6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17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18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

1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2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3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4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6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7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9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사십 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10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11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2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13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4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5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16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17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18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19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4

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2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4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5 또 이 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6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7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9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Domínio Comum.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13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14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5

1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2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4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5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6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7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8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9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2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3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14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

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2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6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8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9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0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11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2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14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15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이를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17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써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18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19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20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

1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2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3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4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5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십분의
일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6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7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8 한 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십분의 일을 받고, 다른 한
편에서는 살아 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9 말하자면,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십분의 일을
바친 셈이 됩니다.

10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11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2 제사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13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14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5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16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17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18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하므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19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20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21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22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23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24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25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26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27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28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8

1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2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3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6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8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9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Domínio Comum.

10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1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12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13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9

1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 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3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4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5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6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7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8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9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10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12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13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14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15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16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17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8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19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20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21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22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24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25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26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27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

1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써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3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4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 줄 수는 없습니다.

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6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7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8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9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1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3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14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5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 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17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18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19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21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3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24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26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27 남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28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29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30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32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 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33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34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35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36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37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39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2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3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9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10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11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3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14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6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18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19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20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 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21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22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23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4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25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26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7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28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29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30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31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34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35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37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38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39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40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

1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떼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2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4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5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6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7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8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9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0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11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15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6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7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18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 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19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20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1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22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 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23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25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26 그 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27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29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3

1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2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3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4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5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6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7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9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10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11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12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3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14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15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16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17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18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19 내가 여러분에게 좀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21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22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24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5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2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3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5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6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7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8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9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10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12 시험을 견디어 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13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14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15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16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17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18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1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

20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22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3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24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25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26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27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

1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2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3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4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6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7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8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10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12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13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14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5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16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18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19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20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2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23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24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6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3

1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3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4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5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6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7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8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겉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10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11 샘이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12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 물을 낼 수
없습니다.

13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14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15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16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17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18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4

1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2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3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4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5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7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8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9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10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11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12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13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14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5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16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5

1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2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3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4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5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6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7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8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9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10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11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12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오”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오”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3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14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15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17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19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20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4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6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7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8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9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11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12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14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15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16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17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18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20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21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22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23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4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

1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2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3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4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 있는 귀한 돌입니다.

5 살아 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6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7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8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10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12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3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14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15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17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18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19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0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1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22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25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

1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3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겉치장을
하지 말고,

4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7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9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10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12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13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14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15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16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18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19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20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21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22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

1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2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3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
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4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5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6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8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9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10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11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1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Domínio Comum.

13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4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6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17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18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

1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3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4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5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6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9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0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1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13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4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Domínio Comum.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앎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4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6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7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8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9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12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13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5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16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17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18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19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20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

1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2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 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5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 때에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일곱 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6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7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8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9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두실 줄을 아십니다.

10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11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12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13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 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14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15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삯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16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17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 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8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 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19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21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22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베드로후서 3

1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2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3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4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5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6 또 물로 그 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8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9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10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11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12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13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15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16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8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1서

요한1서 1

1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

2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4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5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6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8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0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요한1서 2

1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3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4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5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6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7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8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9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10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11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12 자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4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18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21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보내는 것입니다.

22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23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24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25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26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27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28 그러므로 자녀 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9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요한1서 3

1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4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5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6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7 자녀 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8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9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10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11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13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14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15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16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7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18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19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1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22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23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4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요한1서 4

1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3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4 자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5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6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13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16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17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18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20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1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요한1서 5

1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4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5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6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7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8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9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3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5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16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17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18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므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19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20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21 자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Domínio Comum.

요한2서

요한2서 1

1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3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4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5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6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8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9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10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11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2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13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요한3서

요한3서 1

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2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3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4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5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6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7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8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9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11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12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13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14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15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유다서

유다서 1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3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4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5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6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7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좇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8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9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10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11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삯을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12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 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13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14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15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16 이들은 불만에 싸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17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18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22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23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24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25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

1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4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6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7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9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10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12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 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13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15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놋쇠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16 또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17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18 살아 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19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20 네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요한계시록 2

1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2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 낸 것도, 알고 있다.

3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4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6 그런데 네게는 잘 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8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9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11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2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13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 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4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6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17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18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19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20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21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22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23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26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7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28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29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 3

1 "사데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2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 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4 그러나 사데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5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6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8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9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10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 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11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12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 두겠다.

13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15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16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17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18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1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22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 4

1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2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3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4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스물네 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스물네
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5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6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 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7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8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9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10 스물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11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5

1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2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3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4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5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6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7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8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0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11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12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13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 하도록
받으십시오.”

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

1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3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 그 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5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6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 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7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8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써 사분의 일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9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11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2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13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15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16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17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 낼 수
있겠느냐?”

요한계시록 7

1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4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5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6 아셀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7 시므온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잇사갈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8 스불론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었습니다.

9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11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12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 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13 그 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14 내가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15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16 그들은 다시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17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

1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2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4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5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 그 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졌습니다.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11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13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요한계시록 9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2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3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6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8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9 쇠로 된 가슴막이와 같은 가슴막이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10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11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12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4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15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16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이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17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막이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18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19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20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21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0

1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싸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2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3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4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5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6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8 하늘로부터 들려 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9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10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11 그 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1

1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 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 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2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 뜰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3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천이백육십 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4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5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6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7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8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9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2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13 바로 그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칠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 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싸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4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16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스물네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17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18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19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 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

1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열두 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2 이 여자는 아이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일곱 개와 뿔 열 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일곱 개 쓰고
있었습니다.

4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 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5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6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천이백육십 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7 그 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8 당해 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9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10 그 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11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 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12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13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14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15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 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16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 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17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 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18 그 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3

1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일곱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3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4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5 그 짐승은, 큰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6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7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8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9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10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11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12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13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미끼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15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16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18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육백육십육입니다.

요한계시록 14

1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거문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3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4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5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6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7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8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9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10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11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12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13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 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16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들였습니다.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19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20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5

1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3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4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5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6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7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 하도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8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

1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2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3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4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5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6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8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9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0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11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2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13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4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5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16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18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19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20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21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7

1 대접 일곱 개를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 주겠다.

2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3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 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일곱과 뿔 열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4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5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6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7 그 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일곱과 뿔 열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9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Domínio Comum.

10 그 가운데서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11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12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13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14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5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16 그리고 네가 본 그 열 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17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18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8

1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2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3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4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5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6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 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7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 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8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9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10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 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11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12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14 네가 마음 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네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네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15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16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야,

17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18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19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21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2 거문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어떠한 세공장이도 네 안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요,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23 등불 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모든 민족이 네 마술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고,

24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

1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2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3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4 스물네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5 그 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6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7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8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9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10 그 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11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15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16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7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19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21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

1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3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 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5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7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8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9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10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 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11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2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3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15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

1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6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9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 하고,
10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싸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열두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열두 대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열두 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 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 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니, 사람의 치수로 백사십사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18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21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24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27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

1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와서,

2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3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4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5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6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7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9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10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11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12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13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14 생명 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15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19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Esclarecimento

Trata-se de iniciativa particular, com os seguintes objetivos: (i) colaborar para divulgação dos diversos textos bíblicos disponíveis, e, (ii) facilitar o acesso a esses textos, inclusive por meio de download.

Todo esforço em tornar a Palavra de Deus acessível a todos, em quaisquer localidades e falantes das mais diversas línguas, precisa ser um objetivo de todos os que são guiados pelo Espírito Santo. Ele inspirou o profeta Jeremias a dizer "não ensinará jamais cada um ao seu próximo, nem cada um ao seu irmão, dizendo: Conhece ao SENHOR, porque todos me conhecerão, desde o menor até ao maior deles, diz o SENHOR" (Jer. 31:34).

Jesus, também, falou assim: "e será pregado este evangelho do reino por todo o mundo, para testemunho a todas as nações" (Mat. 24:14).

Muitas organizações foram constituídas com o propósito de fazer a Bíblia disponível nas diversas línguas. Não é uma tarefa simples. Anos de trabalho, dedicação e entrega são necessários para esta tão extraordinária missão.

O texto deste trabalho está disponível na internet, em páginas eletrônicas de organizações que produzem ou divulgam bíblias, sem acréscimos de notas ou comentários. Assim, reconhecendo e respeitando os direitos que possuem sobre seus trabalhos, incumbe a todos os que amam a Palavra de Deus, o esforço em contribuir para amplificar sua divulgação.

Se possível, faça download do texto, para que sejamos, também, guardiões da Bíblia, e, com isso, preservando-a para as futuras gerações.

Divulga a Palavra de Deus, ela mostra o Caminho e permite a todos, que se conheça Sua vontade, em todos os lugares e épocas.

Marcel da Glória Pereira

2021, Vitória/ES - Brasil

Capa: Pôr do sol sobre o mar. Trata-se de imagem disponibilizada na internet, dentre as que não informam haver restrição ao uso.